

희망실천

2013 December. Vol.19

<http://www.em21c.com>



'손길 하나하나가 희망의 EM실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M실천과 함께하는 48명의 손도장)

EM실천
Empowerment Society

희망실천



장애없는 평등한 세상
 화스한 음릉제를 향해
 함께 같이갑시다.
 금원구경장 윤성수

희망실천

2013 Winter. Vol.19



'손길 하나하나가 희망의 EM실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M실천과 함께하는 48명의 손도장)

발행일 2013년 12월 26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릉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 04 동행의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는 공간 _ **늘푸름보호작업장 원장 안성기**
- 06 2013년 서울특별시 어울림체육대회
- 08 EM실천 힐링 & 불타는 금요일
- 10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_ **양현모**
- 12 해방을 앞둔 사회복무요원의 어느 날 _ **조범선**
- 14 설레임의 첫 출근 _ **박희선**
- 16 가족글_44살의 어린아이, 내동생 _ **장남현님 누나**
- 17 다시, again _ **김혁수**
- 18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 출판세미나
- 20 올해의 고객상
- 22 한울법인 후원행사
- 24 카페온다 open
- 26 2013년 EM실천 송년회의 밤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들'
- 28 EM실천 이대로 좋은가 '2013년 사업평가회의'
- 30 Thanks for you!
- 32 News
- 34 작은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 35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안

‘동행의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는 공간’

EM실천

늘푸름보호작업장 원장 안 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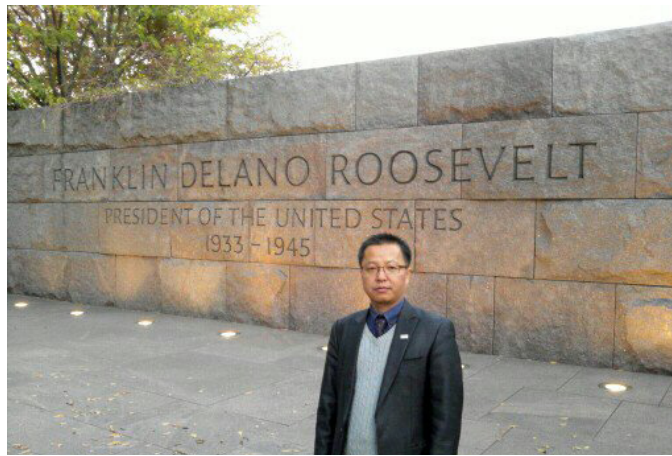
EM실천이란 시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지켜보면서 늘 한결같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내 스스로 자극을 받는다. EM이라는 이름처럼 Empowerment를 위하여 같은 공간에서 삶을 함께 공유하는 시설 내 모든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EM실천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진다.



EM • 2013 Winter, Vol.19



김영환원장 / 소통과 도약의 이မ်실천 화이팅!



이제 갓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김영환’이라는 사람의 지도력과 어우름이 더하여 지고, 그를 받쳐주는 모든 직원들 하나하나가 열과 성을 다하여 직업재활이라는 비포장의 길을 아스팔트로 바꾸기 위한 그들의 사회복지와 직업재활에 대한 애정에 박수를 보낸다. 가끔 시설을 방문하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설 내 직원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동의 힘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 노력, 역동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전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약간의 미흡함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과 비교되는 경쟁사회에서 고객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느슨한 부분이 보여 진다.

물론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 지지만 좀 더 빨리 완전한 모습으로 단점을 보완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에 EM실천만의 단점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시설로 타기관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하는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인쇄하고 꿈을 배달합니다” 참 멋진 슬로건이다. 정말 마음에 든다. EM실천과 함께 직업재활을 하는 모든 시설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의 일터가 아닐까 한다. 때로는 복지논리, 자유시장 경제논리와 상충되는 혼란이 존재하지만 어찌 보면 같은 논리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해법을 찾지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해법을 찾는 EM실천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EM실천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보는 EM실천을 몇 자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줄여 표현하자면 **“동행의 아름다움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더욱 노력하는 EM실천”**이 되었으면 한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밑바닥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EM실천을 위하여~





서울시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함께하는
2013 서울특별시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어울림 이모



박진희 / 2014년에는 도도 많이 보고 전향하고 싶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최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체육대회
저 모



EM실천



힐링 & 불타는 금요일 등반대회



직업재활팀장 권 장 윤



EM • 2013 Winter Vol.19

2013년 체육대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직원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첫 등반대회로 개최되었다.

등반대회에 조편성을 4개조로 하여 대중교통(버스)으로 이동하고, 등반하는 일정으로 하여 조별의 단합과 2013년 체육대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직원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첫 등반대회로 개최되었다. 소통을 많이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석 /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ㄹ

1조



2조



3조



4조



드디어 조별로 집결지인 관악산 매표소 입구에 모였다. 원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모두 출~~~발~~~ 드디어 조별로 등반을 시작했다. 등산길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고 맑은 공기가 더해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사전답사 대신 인터넷 검색 등으로 등반코스를 탐색하여 막상 등반코스에 도달했을때 길이 여러 길로 나누어져 있어 당초 계획코스보다 가지 못해 힘든 코스로 진행되고 말았다. 하지만 EM실천 가족들은 불평,불만없이 변경된 등반코스에 잘 적응하며 열심히 재미있게 등반에 임하였다. 힘든 등반이 종료된 후 EM실천 식구들의 얼굴이 훌쩍 해졌다. 어찌나 미안하던지.... 중간에 팀별 미션으로 원장님께서 조별조장에 미션을 전달하였으나 가장 정확하게 미션한 팀은 2조였다. 2조는 상품권이 개인별로 지급되어 부러움을 샀었다. 하지만 오늘 등반대회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원곤선생님이셨다. EM실천에서 가장 고참이시면서도 힘든 등반코스 거뜬히 정복하시고, 다른사람 짐까지 대신 들어주시는 친절 다시 말해 완전 대박! 짱이셨다. 이런 짧은 2시간의 등반코스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건 극히 드문 일인 것 같다. 짧지만 강렬한 등반을 마치고 매표소로 내려가기 전 우리의 첫 등반대회의 기념사진을 관악산 진한 단풍과 함께 추억의 필름을 남겼다.

힘든 등반코스를 예쁜 추억으로 생각해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직원+회원)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등반대회의 개최를 기대하며, 마침표로 정리합니다.

이성우 / 우리 식구들이 화목한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양 현 모

10
+
1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이မ်식구를 잘지내고 있지요?

제목이 좀그렇지요? 소식지 쓰기 싫어서 도망쳤건만 글요청이 오는 순간... 저를 슬프게 하더군요. 농담이구요. 여전히 그림고 보고싶어 힘들었습니다.^^ 얼마전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바라기 노래가 나오더군요. 작년 송년회때 신영권주임님의 기타연주에 맞춰 장기자랑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있지, 바람부는 벌판에 서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

가사가 얼마나 사무치는지.. 문득 그때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8월말에 이မ်과의 종지부를 찍고 10월의 첫날에는 신랑과 제주도에서 늦은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아보자 외치고 한라산 등반도 하고,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메말라버린 백록담도 보고, 왕복 9시간에 걸쳐 등산을 마쳤습니다.



EM • 2013 Winter Vol.19

그런데 그날 저녁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가렵고, 날을 꼬박 세어 결국 제주도병원에 제 이름 석자를 남기고 왔답니다. 그 후 집에서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레몬차도 담궜답니다.



장정임 /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된 삶을 살 수 있는 201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에는 엄마와 결혼 전 여행한번 가보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 밤에 기차표를 예매하고 숙소예약을 하고 새벽에 전주한옥마을로 떠났습니다. 콩나물국밥도 먹고, 풍년제과에서 초코파이도 사먹고, 맛있는 떡갈비 집을 찾아 해매고, 단풍든 나무를 배경삼아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백수생활 참 좋았습니다.. 한달 정도는 좋았던 거 같습니다. EM실천 현관문을 자신있게 박차고 내가 해야할 일은 분명히 어딘가에 또 어디있을 꺼라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놈의 조급증이 저의 목을 조여왔고, 이력서는 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가슴을 조리고, 자신감이 사라 지더군요.

서른이 되어서야 청년실업? 이제.. 주부실업이지요. 주부실업 난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얼마나 한심했던지, 직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소식지 제출해야할 날은 얼마남지 않았는데.. 좋은소식을 전해줘야 할텐데.. 고민하던중..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인생의 두 번째 일터는 지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우리 EM실천 식구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두 번이나 본 저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달리고 있고 나아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고, 그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고 도전하세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해봤으니까요.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 더라고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연락주세요.(어쩔 연락하는 분이 한분도 없으신지..저를 잊으셨나요?) 모두들 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구요. 나날히 발전하고 변화되는 EM실천을 기대하며 먼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EM실천 파이팅!!

보고싶다!

양현모선생님을 추억하며.. 한마디씩!

박미선 - 행복하고 EM실천과 함께한 그 때가 소중한 추억이 되길.

권장운 -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김지현 - 미운정, 고운정, 다들어버렸는데,

아직도 샘의 빈자리가 느껴지는구만요

고미나 - 항상 힘이 되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이 좋은 기억이 되기를.

박수현 - 내사랑 너의 사랑 양현모♥현모샘 보고싶어요!!

박경아 - 양친! 어디서든 가슴이 뛰는 일을 하길.

가윤경 - 양선임. 흥! 내마음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듯!

강정식 - 현모샘! 보노보노 닮은 현모샘!

장원석 - 매번 고마웠습니다. 어디서든 빛나시길.

이진숙 - 딸래미. 그만둔다고 막 그래서 안돼! 보고싶네,

집으로 놀러갈께. 고생했다.

※ 양현모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2013년 8월 EM실천에서 퇴사하셨습니다.



실레임의 첫 출근

 금천구 복지일자리 박 희 선

14
+
15

EM 2013 Winter Vol.19

EM실천

Empowerment Society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정희 / 흘러간 2013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4년을 맞이하자. 돈 많이 벌고싶다.



금천구 복지일자리로 EM실천에서 일하게 된 박희선입니다.

4년 전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게 되어 한 손 밖에 없었던 저에게 EM실천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걱정과 긴장, 설레임의 출근 첫 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EM실천과 함께 하게 되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너무도 반겨주신 김영환 원장님과 박미선 팀장님, 직원 분들, 근로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 걱정했던 마음이 놓였습니다.

EM실천에서 제가 맡은 일은 차량 운행 및 배송일인데 원래 화물차 운전을 했던 저에게 EM실천 배송일은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이력서를 보내도 한 손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는데 EM실천에서는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셨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 하루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EM실천에 온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앞으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며, 항상 자만하지 않고 안전운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M실천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복지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늘고 기간도 더욱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M실천 번창하기를 바라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올해의 고객상

(인쇄 · 복사 · DM발송 · 현수막사업)

20
+
21

꾸준한
주문상

<올해의 고객상-현수막사업>

꾸준한 주문상 (현수막사업 부문)

대한주택보증 홍보비서실
사회공헌팀 차장 홍기웅

귀하는 EM실천의 현수막사업 운영의 꾸준한
주문과 매출을 증대시키고 귀하의 홍보를 통해
현수막 사업의 일거리 제공으로 근로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EM실천에 모든 임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꾸준한 주문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EM실천 원장 김 영



고용창출
공로상

<올해의 고객상-유권발송팀>

고용창출 공로상 (DETAIL사업 부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과장 이춘조

귀하는 EM실천의 사업과 운영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본 기관의 운영 취지를
높이 평가하여, 꾸준한 일거리 제공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앞으로도 EM실천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EM실천의 모든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김 영



고객
감동상

<올해의 고객상-유권발송팀>

고객 감동상 (인쇄사업 부문)

한국남부발전
대외지원훈련팀 주임 조성호

귀하는 EM실천의 사업과 운영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본 기관의 운영 취지를
높이 평가하여, 꾸준한 일거리 제공을 통해
근로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앞으로도 EM실천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EM실천의 모든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23일

EM실천 원장 김 영





고객감동상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본부 최대경님, 한국남부발전본부 김시원님, 이해원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전해진님, 박진제님, 교보생명 이세진님,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이보미님, 극동대학교 임은의 교수님,
 인천공항검역소 박희정님



EM실천 홍보상

인천공항공사 서비스 여객팀 박종환님, 금천구청 조성익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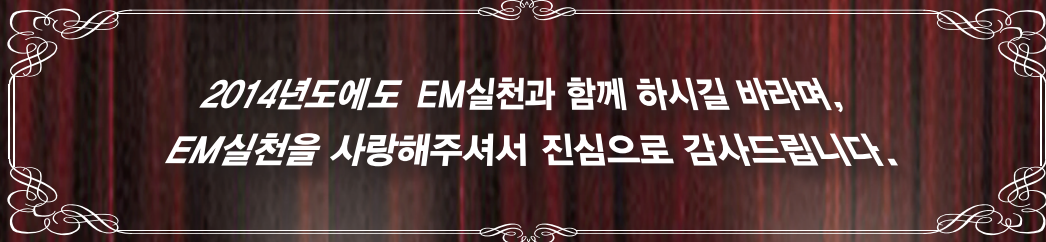
친절감동상

금천구청 신동훈님, 정숙님, 김광조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현실님, 박은숙님, 강수향님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조영조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조윤희님



고용창출상

인천공항검역소 오은경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명수님, 박주혁님, 김두규님, 박성원님, 고병선님
 한국환경공단 구재은님, 은성희님



**2014년도에도 EM실천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EM실천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공동체 설립추진을 위한 **후원의 밤**

일시 : 2013년 11월 16일(토요일)

장소 : 여의도 버블캣츠



EM • 2013 Winter, Vol.19



박동진 /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공동체 설립추진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법인에서 진행되었던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해 있는 ‘베델의 집’ 해외연수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와 직업을 함께 누리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 공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이 앞장서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 및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당사자, 법인 직원, 유관기관 등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한울정신건강 복지재단의 산하시설 종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직접 공연을 하고, 음식을 만들며, 서빙하는 등 저희 법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였으며, 후원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후원의밤을 통해 다양한 유관기관 담당자 및 당사자분들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공동체 설립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나아가 현실로 이루어져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 EM실천 송년의 밤

우리들의 행복 시간



12월 5일 목요일 밤..

2013년을 마무리하는 EM실천의 송년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북적북적한 송년회가 되었는데요. EM실천 가족 외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님과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님이 참석하여 금천구 내에서 EM실천(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지금과 같이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로서의 위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EM실천은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시설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의 EM실천을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늦은 시간이지만 EM실천의 송년의 밤에 참석해주신 가족 및 유관기관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EM실천 임직원 일동 -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님



금천구직업재활시설 최송근, 박형진, 김영환원장님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님



최병태 운영위원장님



명부선씨와 어머니



송년의 밤 진행자 박미선팀장



금천구청 복지문화국 유광복 국장님



우수근로인상 - 객재민



금천구의회장상 - 조용철, 객철



우수종사자 시상
박수현, 장원석, 박경아



우수자원봉사상 -
국민은행가산테크노타운지점



EM실천 화이팅



신영권주임님과 여동생



이성우씨와 어머니 브이



조은세상 박정식원장님,
양희정팀장님



희망팀 합창 '동선' ♪



실천팀 합창 '나는 문제 없어' ♪



한울센터 정보영관장님과
최남정팀장님



화기애애(김형광실장님,
이원곤선생님, 박희선선생님)



우크렐레 공연중
(손선애, 김정희, 장정임, 박민정)



김혁수님 어머니 편지낭독
"사랑하는 혁수야"



두근두근 행운권추첨중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남효진 간사님과 해인이



송년회 진행중



퀴즈퀴즈 진행중 - 권장윤 팀장



보라매보호작업장 원장님
행운권추첨중



송년회 진행중



차성수구청장님과
김영환, 최송근 원장님

장진호 / 약을 안먹으면 좋겠다.



‘EM실천’ 이대로 좋은가 2013년 사업평가회의

비교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11월 23일 토요일 아침..

EM실천 '2013년 사업평가회의'를 실시하였다. 2013년 평가와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장소로는 26일 EM실천에서 새롭게 오픈한 'cafe onda'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온다에서 향기로운 커피한잔을 음미하며 진행된 사업평가회의 전 약 30분간 중소기업유통연구원 경영지도사 차인성 컨설턴트를 모시고 '올바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종사자의 역할' 에 대해 강의하여 주셨습니다.

- 1) 변화를 끌고 갈 것인가, 끌려 갈 것인가
- 2) 전 직원의 내, 외부 변화에 따른 SWOT분석실시와 경영자의 마인드 필요
- 3) 각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한마음으로 조직의 발전에 노력 필요

차인성 컨설턴트님의 강의를 통해 나 뿐 만 아니라 전 종사자 모두 자신의 업무 습관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며, EM실천이라는 배를 어떻게 운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교육 후 각 팀 별로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회의 자료 및 ppt를 통해 발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PPT를 통해 사업평가회의를 진행하여 다들 어색해하는 모습이 가득하였지만, 자신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신감있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업재활팀

- 사회복지사와 편집자와의 업무 조율 건에 대한 논의
- 매입, 매출 관리에 대한 민감성 강화
- 인디자인 교육 필요

보다 예쁘게, 보다 더 + 디자인팀

-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획 부서로의 성장 요청
- 행정업무와 각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
- 업무 보고의 체계화 요청
- 현수막 후가공에 대한 기자재, 기술 확보하여 자체 제작을 향상



꿈꾸는 EM실천, 실천하는 총무기획팀

- EM실천의 특수성에 따른 조직 운영 필요
- EM실천의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자체적인 변화적인모습이 필요함

차인성 컨설턴트 총평

- 색다른 사업평가회의 준비 및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EM실천의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이 미흡
- 각 팀별 정량, 정성 목표에 대한 실적 달성여부 점검 미흡
- 각 팀별 기획력 부재(팀장의 역할) -> 보강(팀별)
- 매출 하락에 따른 대응책 강구
- 마케팅에 대한 보완



김영환 원장님 총평

- 올 한해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
- 열심히 사업평가회의를 준비한 모습이 매우긍정적
- 전 직원이 수량적 평가에 대해 예민하지 못한 점 반성
- 차년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 개인의 역량을 높여 조직이 역동할 수 있도록 노력
- 팀원, 팀간의 관계 개선
-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변화에 휩쓸리는 EM실천 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EM실천이 되기를 바라며!!

Thinking, New Thinking, different Thinking! ”

이지영 /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4년년에는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